



김주형이 10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PC 서머린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최종라운드 18번홀에서 우승을 확정짓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연합뉴스

20살 김주형 PGA 2승 우즈보다 6개월 빨랐다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우승

이번 시즌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가장 뜨거운 신예로 평가받는 김주형(20)이 두 달 만에 두 번째 우승을 따냈다.

김주형은 10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PC 서머린(파71)에서 열린 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총상금 800만 달러) 최종라운드에서 5언더파 66타를 쳐 4라운드 합계 24언더파 260타로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144만 달러(약 20억원)다.

지난 8월 윈덤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PGA투어 대회 우승을 올린 지 두 달 만의 두 번째 우승이다.

첫 우승을 올릴 때는 정식 회원이 아닌 임시 회원 신분이었다. 김주형은 이번에는 PGA투어 카드를 따낸 뒤 첫 우승을 거머쥐었다.

또 윈덤 챔피언십은 2021~2022년 시즌 마지막 대회였고, 이번 대회는 지난달에 시작한 2022~2023 시즌에 처음 참가한 대회다.

PGA투어에서 21세가 되기 전에 두 차례 우승한 선수는 1932년 랠프 고틀(미국), 1996년 타이거 우즈(미국)에 이어 김주형이 세 번째다.

만 20세 3개월의 김주형은 20세 9개월에 PGA 투어 두 번째 우승을 했던 우즈보다 더 빨리 2승 고지에 올랐다.

김주형은 이번 대회에서 보기를 하나도 적어내지 않는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선보였다.

PGA투어 노보기 우승도 세 번 밖에 나오지 않은 진기록이다. 앞서 1974년 리 트레비노(미국)에 이어 2019년 J. T. 포스틴(미국) 등 두 명만 노보기 우승을 달성했다.

김주형은 방송 인터뷰에서 "말하기 어려울 만큼 행복하다"면서 "캐디 도움이 컸다. 팀워크가 좋았고 작전을 잘 세웠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랭킹 4위 패트릭 캔틀레이(미국)와 챔피언조 맞대결에서 완승을 거둬 스무살 신예답지 않은 두드러진 배짱을 과시했다.

김주형은 "경기 내내 마음이 평온했다. 인내심, 자신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KIA 와일드카드 결정전 상대는? 키움 댄 12일·KT 댄 13일 대결

KT·LG, 오늘 3·4위 결정전

고척이냐? 수원이냐? 12일이나? 13일이나? 여전히 상대를 알 수 없는 상황, 5위 KIA 타이거즈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위해 일단 서울로 떠난다.

KBO리그의 3위 싸움이 10일에도 끝나지 않았다. 이날 안방에서 NC 다이노스를 상대한 KT 위즈가 5-2 승리를 거두고, 4위 키움 히어로즈를 0.5경기 차로 앞섰다.

만약 이 경기에서 KT가 졌다면 키움의 3위가 확정되는 상황이었지만 KT의 승리로 '3위 싸움'은 하루 더 진행됐다.

11일 KT가 L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이기면 그대로 3위를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KT가 질 경우 승률은 동률을 이루지만, 상대전적에서 8승 1무 7패로 앞선 키움의 3위가 된다.

키움이 4위가 된다면 KIA는 예정대로 12일 고

척으로 가서 4년 만의 포스트시즌을 맞는다. KT가 4위로 내려온다면 KIA는 하루 밀어 13일 수원에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르게 된다.

상대도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KIA는 투 트랙으로 결정전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9일 하루 휴식을 취했던 KIA는 10일 챔피언스 필드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11일에는 오전 훈련 뒤 서울로 이동할 예정이다.

11일 경기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고척으로 가 12일 경기를 하거나 수원으로 이동해 13일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준비하게 된다.

상대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준비할 게 많지만 KIA 입장에서는 뜨거워진 방망이가 반갑다.

KIA는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 두 팀에 모두 열세를 보였다.

KT에는 5승 1무 10패를 기록했고, 키움에도 6승 10패로 뒤졌다.

하지만 5위 싸움의 분수령이었던 6일 LG전에

서 박동원의 역전 투런으로 분위기를 살렸고, 7일 KT전에서는 황대인, 최형우, 김호령의 홈런 세 방으로 11-1 대승을 거두면서 5위를 확정하기도 했다.

후반기 에이스 선 놀ளி 시즌 마지막 등판에서도 7이닝 1실점(무실점)의 호투를 하는 등 마운드 힘도 좋다. 노련한 양현종, 강심장 이의리와 함께 '조커' 김기훈까지 마운드 총력전도 가능하다.

물론 쉽지 않은 무대다. 5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오른 만큼 1차전에서 지거나 무승부를 하면 KIA의 '가을 잔치'가 종료된다. 2차전까지 승리를 해야 준플레이오프 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 만큼 사활을 건 승부가 예고된다.

주장 김선빈은 최종전 경기가 끝난 뒤 팬들에게 "올 시즌 너무 감사드리고 선수가 하나 더 꼭 필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KIA의 알 수 없는 여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나지완 은퇴식 '끝내기 홈런' 퍼포먼스 2023 KIA 신인 선수들 '새 출발' 다짐

주말 챔피언스필드에 과거와 미래가 공존했다. '타이거즈의 홈런타자' 나지완이 은퇴식을 하고 팬들에게 작별을 고했고, 2023 신인 선수들이 처음 그라운드에 올라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7·8일 KT 위즈와 2연전을 갖고 정규시즌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다.

마지막 2연전에는 각각 1만5175명과 1만7231명이 입장해 관중석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팬들은 눈물과 웃음으로 마지막 두 경기를 지켜봤다.

7일에는 눈물과 환희의 순간이 이어졌다.

이날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홈런(221개) 주인공 나지완의 은퇴식이 열렸다.

KIA 선수들은 떠나는 '홈런타자'를 위해 나지완의 백범버인 29번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다. 5위가 확정되지 않았던 만큼 나지완의 '마지막 타석'은 장담할 수 없던 상황. 하지만 29번 타자들이 이날 나지완을 타석에 세우기 위해 분주하게 뛰었다.

그리고 황대인의 투런을 시작으로 최형우가 중앙 타점을 넘겼고, 김호령도 썩기 스리런을 날리면서 11-1을 만들었다.

8회말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쏟아졌다. 대타 나지완이 방망이를 들고 그라운드에 오르면서 이내 나지완의 응원가가 경기장에 크게 울려 퍼졌다.

'마지막 타석'에 들어선 나지완은 전유수와 의 승부에서 초구 몸 쪽 공을 피한 뒤 파울을 기록했다. 3구 헛스윙 뒤 볼을 지켜본 나지완이 5구째 타격을 했고 공은 내야 파울 지역으로 높게 뛴다. 황대인이 공을 잡아내면서 3루수 파울 플라이로 나지완의 야구 인생 마지막 기록이 작성됐다.

나지완은 9회말에는 좌익수 자리에 서서 팀 5강 확정을 위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지켜본 뒤 선수들과 승리의 세리머니를 했다.

5위가 확정된 날 치러진 은퇴식에서 나지완은 "저 이제 떠나요"라고 고별사를 시작해 사람들을 웃게 했다. "눈물보다는 웃음을 남기고 떠나고 싶었다"는 나지완은 감동과 웃음이 어우러진 고별사로 박수를 받았다.

은퇴식의 하이라이트는 '끝내기 홈런' 퍼포먼스였다. 전광판에 2009년 KIA의 10번째 우승을 확정하는 끝내기 홈런 타석 영상이 상영됐다. 이어 챔피언스필드 타석에 선 나지완의 모습이 겹쳤고,

나지완은 그날처럼 스윙한 뒤 두 팔을 들어 환호했다. 이어 1루를 돌아, 2루, 3루를 지나쳐 홈으로 들어오는 나지완을 향해 선수들은 물 세리머니를 펼치면서 감동의 순간을 연출했다.

8일에는 미래들이 팬들 앞에 첫선을 보였다.

2023 신인드래프트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게 된 총알고 투수 윤영철, 휘문고 내야수 정해원, 마산 용마고 투수 김세일, 광주고 투수 박도규, 동성고 투수 이송차, 휘문고 투수 이도현, 안산공고 투수 박일훈, 서울고 내야수 김도원, 송원대 내야수 김재현이 이날 챔피언스필드에서 환영식을 가졌다.

윤영철은 "1군에 자리 잡는 게 첫 번째 목표다. 그 후부터는 새로 목표를 만들어가면서 팬들 기억 속에 많이 남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고, 정해원은 "매 시즌 20홈런 이상 칠 수 있는 그런 타자 되고 싶다. KIA 3루수 하면 이번호 코치님과 제가 떠오를 수 있게 하고 싶다"는 포부를 이야기하는 등 신인 선수들은 이날 자기소개와 각오 등을 밝히며 새로운 시작점에 섰다. 또 부모님께 유니폼을 입혀드린 신인 선수들은 큰절을 한 뒤 부모님과 시구·시포 행사도 진행했다.

한편 이날 KIA가 키움에 2라운드 지명권을 양도하면서 영입했던 포수 박동원도 신인 선수들과 자리를 해 눈길을 끌었다. 2라운드 지명 선수 자리에 선 박동원은 "개성고 2라운드 포수 박동원입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해 관중석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홈폐막전 4-0 승... K리그2 최다승 '25승'

광주FC가 홈폐막전을 4-0 대승으로 장식하면서 K리그2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웠다.

광주가 지난 9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경남 FC와 K리그2 43라운드 경기를 펼쳤다. 광주는 홈에서 치른 2022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후반 9분 터진 엄지성의 골을 시작으로 마이키, 이견희, 산드로의 득점 퍼레이드 속에 4-0 승리를 거뒀다.

올 시즌 경남에게 당했던 1-4패를 그대로 갚아 준 광주는 이 승리로 K리그2 최다승 기록을 '25승'으로 갈아치웠다. 앞서 최다승 기록은 경남이 2017년 장성한 24승.

안산전 3-0 승리로 24승째를 기록했던 광주는 25승을 채우면서 K리그2 새 기록을 작성했다. 또 이미 광주가 새로 만든 최다승점 기록도 85점으로 경신했다.

후반 9분 엄지성이 골 폭발의 시작을 알렸다.

중원에서 박한빈이 오른쪽 측면에 있던 엄지성에게 골을 찔러줬다. 엄지성이 공을 몰고 페널티 지역으로 진입한 뒤 오른쪽으로 슈팅을 날리면서 경남 골대를 갈랐다. 이와 함께 엄지성의 시즌 9호 골, 박한빈의 시즌 6번째 도움이 기록했다.

후반 13분 엄지성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마이키가 대신 그라운드에 투입됐다.

경기에서 박한빈이 슈팅을 선보이며 경남을 흔들었던 마이키가 후반 15분 바로 득점에 성공했다. 오른쪽 측면에 있던 마이키가 문전에 있던 산드로에게 길게 올린 크로스가 그대로 바운드된 뒤 골망을 흔들었다. 마이키의 4호골.

다음 골 퍼레이드는 이견희가 이었다.



광주FC가 지난 9일 경남FC와의 홈 폐막전에서 4-0 승리를 장식한 뒤 우승 시상식을 열었다. 사진은 헤이스가 우승컵을 들고 선수들과 환호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이옴이 왼쪽에서 중앙에 있던 이견희가 공을 넘겨줬고, 이견희가 오른쪽 중거리 슈팅을 날리면서 올 시즌 6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이옴의 9호 도움도 동시에 기록됐다.

공 행진의 대미는 '후반기 에이스' 산드로가 장식했다.

마이키가 오른쪽에서 침투하던 정호연에게 공을 찔러줬고, 정호연은 문전에 있던 산드로를 향해 패스를 했다. 산드로가 눈스톱 슈팅으로 공을 밀어 넣으면서 4-0 대승을 완성했다. 산드로의 시즌 7호골. 앞서 마이키의 골을 도왔던 정호연은 산드로의 득점에도 관여하면서 4도움을 기록했다.

5861명 올 시즌 최다 관중 앞에서 시원한 승리

를 만든 '챔피언' 광주는 K리그2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광주는 이 경기가 끝난 뒤 우승 세리머니까지 하면서 K리그2 복귀를 자축했다.

한편 전남드래곤즈는 지난 8일 열린 서울이랜드와의 43라운드 홈경기에서 3-0 승리를 거두며 3연패에서 탈출했다. 전남은 전반 26분 상대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한 뒤 전반 34분 이종민의 선제골로 공세를 시작했다.

후반 7분에는 김수범의 도움을 받은 김현욱의 골이 나왔다. 후반 36분에는 박인혁의 슈팅이 골키퍼 맞고 뒤로 흘렀고, 이후권이 공을 잡아 재차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